

6월 국회 시작... '황교안 청문회' 최대 쟁점

황 후보자 병역·전관예우·증여세 탈루 등 '화약고'

여야, 민생·경제법안, 임금피크제 놓고 격돌 불가피

1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한 달 동안의 일정으로 개막된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공적연금 개혁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청문회**=당면한 최대 과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오는 14일 전까지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완결돼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결표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에서는 황 후보자의 병역 특혜, 전관 예우와 기부약속 이행 여부, 자녀 증여세 탈루 등을 놓고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문회 개최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활성화 법안**=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도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각자 지지층과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정부가 수개월째 통과를 요청했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중점으로 우선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조 단계(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재벌 대기업 특혜'(관공정진흥법)로 판단하고 오히려 주요 저지 법안 목록에 올려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2~3일 1박2일 의원 워크숍에서 임시 국회 주요 안건과 전략을 확정하고 여당과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 및 공적연금 개혁**=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을 놓고도 제2리운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와 법제처가 이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에 나설 경우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논의도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이나 활동기간 등을 놓고 소란 상임위에서의 공

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편을 일단락 지으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도 이슈다.

사회적 기구가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만큼 여야는 벌써 물밑으로 20명의 위원 후보군을 모색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동의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달 지침을 마련하려는 것과 관련,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원석 의원(오른쪽)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대회의실에서 황 후보자의 전관에 우 수임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진·박병계·홍종학 의원. /연합뉴스

野 고질병 '계파문제' 끝장토론 벌인다

내일부터 이틀간 전체 의원 참석 양평서 워크숍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3일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서 당내 계파문제를 놓고 원탁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당 분열의 계기가 된 계파갈등에 대한 난상토론을 통해 소통과 혁신의 추진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감정싸움이 아닌 치밀한 논리대결을 통해 냉철하게 계파문제를 파고들어서 계파갈등 극복방안을 찾아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워크숍 둘째 날인 3일 마지막 순서로 열리는 원탁토론은 '4·29 재보선 진단 및 당계파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2~3시간 동안 진행된다. 10여개 테이블에서의 그룹

토론 뒤 각 그룹 대표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이는 '2중 토론' 형식이다. 모든 참석 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과 개방성을 높인 방식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의원들에게 토론의 기술을 전수할 초청 인사는 원탁토론 전문가로 알려진 강원대 강지원 교수. 강 교수는 새정치연합의 쇄신을 책임진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할 때 경기도교육청 산하 울곡교육연수원장으로 일했고, 지난해 '민선 교육감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김 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

감을 패널로 초청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토론에 배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은 워크숍 첫날인 2일 당 혁신 방안에 대해 특강을 한다.

이번 워크숍을 총괄하는 당 교육연수원장 안민석 의원은 지난 31일 "우리가 왜 됐는지, 이것이 계파의 문제인지, 우리가 무능해서인지, 전략의 부재인지 의원을 개개의 의견을 공유하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당의 위기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워크숍을 비상한 각오하에 진행할 방침이다. 원탁토론 외에 산행과 농장 일구기 등 프로그램도 뒤편하게 준비했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의 극적 통과

국회는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이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낮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박지경기자jzkpark@

정가라운지

박혜자, '사법형 그룹홈' 법적 근거 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은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년범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그들의 사회적응과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사법형 그룹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현재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대부분의 소년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감호위탁 처분을 받지만, 부모의 이혼과 부재 등의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손가



정의 소년들은 재범률이 67%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종의 대안 가정한 청소년회복센터(별칭 '사법형 그룹홈')가 설립돼 현재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14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은 법원이 매달 지급하는 소년 1인당 교육비(약 60만원)뿐이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내현, 복지시설 청소년 진로특강 등 '청소년축제'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이 광주아동복지시설협회(협회장 박사라)와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2시 송원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제7회 5월 청소년 축제'를 진행했다.

'내 꿈의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는 복지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인사 10명이 직접 진로 특강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영주 광주공업고등



학교 교장, 이동희 호남대 항공운항과 교수, 박성준 전남대 전기공학과 학과장 등 지역사회 10개 분야 진로 멘토들이 시설 아동들에게 직업세린 이날 축제는 복지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인사 10명이 직접 진로 특강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영주 광주공업고등

황주홍 "지자체 복지사업 추진 재량권 부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의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의 생략하고 지자체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을 펼치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복지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른 차별 없이 일괄적으로 증명서와 협의의 거처야 해 비효율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남도는 이낙연 지사의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자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승남,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3개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기초 농수산물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거둬들이는 '무역이익협정금'의 일부를 농수산물 직접 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농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FTA특별법 개정안은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이익 일부를 '무역이익협정금'으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농축산업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안법 개정안은 기초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 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해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FTA특별법 개정안은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이익 일부를 '무역이익협정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522.3㎡(158.15평)
연 면 적: 2,073.86㎡(627.96평)
층 수: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6703-4899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중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 이수(9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장외의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입학원서 작성	2015. 6. 8.(월) ~ 2015. 6. 19.(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2015. 6. 8.(월) ~ 2015. 6. 19.(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형일시	2015. 6. 26.(금) 10:00~
합격자 발표	2015. 7. 23.(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환경융합학/식품·차산공학/지역환경차량공학

■ 문 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a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